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19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의 대학원생활 경험

신자현*, 강경옥**, 이수진***, 김현숙***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과*, 전북대학교병원**,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Graduate school experiences of married women in the nursing profession

Ja Hyun Shin*, Kyung-Ok, Kang, Su-Jin, Lee***, Hyun-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VISION University College of Jeonj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pt. of Nursing**
Kunjang University College, Dept. of Nursing***

요 약 본 연구는 다중역할을 하는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의 대학원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질적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으로서 대학원에 재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생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반구조적인 개인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5개의 범주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감', '심도 깊은 학업 부담감에 짓눌림', '가족에 대한 죄책감', '많은 역할간의 갈등으로 몸부림침', '힘든 가운데 찾은 의미와 보람'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간의 건강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지체계를 통하여 대학원과정을 배려하고 지지해 준다면 간호학문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돕고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의 대학원생활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주화한 결과로 합리적인 중재 방안의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주제어 :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 대학원생활 경험, 현상학, 질적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nurses in graduate school who fill multiple professional roles. The research's participants were women in the nursing profession studying towards postgraduate degrees. Their experiences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feel constantly short of time, pressure from the demands of their study, guilt owing to inability to fulfill family commitments, struggles related to the conflicts of multiple roles, and the feeling of satisfaction from accomplishing professional goals. This paper suggests that if nurses undergoing graduate study have an organized support system to help them perform the roles, they will find an identity in the nursing profession and will take care of their patients more professionally as a result. Such support depends in part on health administrators'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nurses' circumstances.

Key Words : Nursing profession, Married women, Graduate school life, Phenomenology, Qualitative research

Received 13 October 2015, Revised 15 Dec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Hyun-Sook, Kim
(Kunjang University College, Dept. of Nursing)
Email: rhokim@g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여성 박사인구는 2009년 33,000명 정도로 추산되며[1], 2014년 1년 동안에만 3,229명의 신규 여성박사들이 배출되었다[2]. 2009년을 기준으로 여성 박사 비율이 높은 분야는 간호학, 가정학, 보건학, 문학, 교육학 등으로 조사되었다[1]. 이처럼 전문적인 직업과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건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적 간호의 영역은 더욱 구체화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3].

간호는 각 개인의 고유한 독자적 특성과 상황을 염두해 두고 안위를 도모하며 돌봄을 실행하는 실천학문이며[4], 전문적, 과학적, 미적, 윤리적, 개인적인 인간 돌봄 행위에 의해 중재되는 인간과 인간의 건강 및 질병 경험에 관한 인간과학이다. 그러므로 전문 간호사가 건강관리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상적 실무능력 교육과 전문화 대비를 위한 준비가 간호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학 전공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박사과정의 목적은 연구와 학문활동을 통하여 간호사가 그들의 분야에서 과학적 지식기반을 확장해 나가고 사회와 간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며[5], 석사과정은 급변하는 전문분야와 임상실무에 매우 밀착되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간호사는 현대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과 대상자의 실존적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7], 대상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간호하며 환자의 행동 및 업무량, 업무시간, 역할 갈등, 연령, 결혼상태, 개인의 경험 및 스트레스 관련 성격유형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8,9],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스트레스와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10].

한국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이 유지되고 있어 여성들이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11]. 박사학위를 가진 간호사들은 대부분 학생들을 교육하고, 임상실무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12]. 그런데 신규 여성 박사들의 연령은 주로 30대 이하로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초기 경력 단절 위험이 높은 시기라고 보고되고 있다[1]. 즉,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려고 시도해도, 결혼을 하면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며,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3].

간호학 박사 과정생 다수가 전문직으로서 간호학문의 발전과 개인적 성장의 실현을 위해 학업을 계속하는 사람들로서 다중역할수행자로 생활해 나가고 있지만[12], 현재까지 간호학 과정생들의 대학원생활에 대해 가정생활을 함께 고려하며 이해를 시도한 경우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 박사과정생들의 버거움에서 벗어나는 과정경험[14], 대학원 간호교육과정에 관한 조사연구[15], 간호전문직에 종사하는 대상자의 간호학 박사과정 체험이 연구[12]되었으나, 최근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을 하는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간호학 대학원생들이 최근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관하여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최근 기혼 간호학 대학원생들의 체험을 이해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이 대학원생활을 하면서 겪는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서술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중역할을 하는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의 대학원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Colaizzi[16]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질적인 표본 추출을 위해서 적절성과 충분함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의 적절성은 연구 주제와 목적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편의 추출 방

법으로 충족될 수 있으며, 자료의 충분함은 심층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모든 부정적인 사례들도 조사될 때까지 수집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17].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듣고 자유롭게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참여자는 기혼인 간호전문직 여성으로서, 대학원에 재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생으로 5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5명으로, 구술내용 중 의미 있는 진술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동의와 거부 및 중도 포기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면담내용의 녹음을 위한 녹음기 사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 참여자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된 전체 면담 내용은 개개인의 정보는 기밀로 간주하고 식별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출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2.4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는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에서 박사과정 중 질적간호연구 강좌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관련 참고문헌들을 숙독한 연구자 4인에 의하여 함께 수행되었다. 어떤 가능한 인간 경험이 현상학적 탐구의 주제가 되어야만 하는가의 특정 관심 영역에 초점을 두어 현상을 확인하려는 연구주제로 부터 출발되었다. 연구자의 왜곡된 시각이 분석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성일지를 작성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질적내용 분석결과에 대하여 연구자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석결과에 대하여 토론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같은 분석결과를 나타낼 때까지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분석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적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였으며, 참여자와의 대화식 면담을 강조하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대화식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이 참여자와의 사전 만남을 통해 면담 전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자들과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사이며, 대학원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면담장소는 서로의 대화가 방해받지 않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이 있는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에 앞서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직업, 자녀수, 학위과정을 확인하였다. 면담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로부터 시작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대학원 생활의 체험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자연스럽게 요구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음성녹음을 하였으며, 심층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얼굴표정과 몸짓, 태도 등을 관찰하면서 메모노트를 활용하여 기록하였다. 녹음한 내용의 필사는 면담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면담 당일 혹은 1-2일 이내에 시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 한 후에 연구자가 모두 직접 필사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별로 진행된 면담횟수는 평균 2회였고, 1회 면담시간은 약 2시간 정도였다. 추후 부족한 내용이 있을 때는 전화로 추가면담을 실시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Colazzi[16]가 제시한 7단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1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녹음 내용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면담 상황을 떠올리며 대상자의 진술을 그대로 필사하였다.

2) 2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강조되는 내용 현상과 관련이 깊은 내용에서 주요 진술을 추출하였다.

3) 3단계에서는 추출된 주요 진술로부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구성된 의미는 4명의 연구자가 함께 확인하고 공통된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통합하였다.

4) 4단계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된 진술을 주제, 주제모음, 범주로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5) 5단계에서는 주제모음, 범주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6) 6단계에서는 포괄적으로 기술되고 조사된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의 경험이 지니는 본질적인 구조를 진술하였다.

7) 7단계에서는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 5명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대상자들에게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5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에서 추출한 주요 진술은 총 140개였다. 이들 주요 진술로부터 구절과 문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진술로 의미를 구성한 결과 45개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들 의미로부터는 일반적인 의미를 도출하여 참여자의 대학원생활 경험을 나타내는 16개의 주제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이들 주제는 더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도출된 8개 주제모음과 5개 범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각 범주와 이들 범주에 포함된 주제 모음에 대한 설명 및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7.4세이며,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은 임상간호사 1명, 상담간호사 1명, 시간강사 1명, 전임교수 2명이었다. 2명은 자녀가 1명이었으며, 2명, 3명과 자녀가 없는 대상자가 각각 1명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5)

Participants	Age (year)	Number of children	Occupation	Education program
1	37	3	University professor	Nursing doctoral program
2	33	0	Part time lecturer	Nursing master program
3	41	2	Counseling nurse	Nursing doctoral program
4	36	1	Clinical nurse	Nursing master program
5	40	1	University professor	Nursing doctoral program

3.2 5개의 범주

3.2.1 시간에 쫓기며 살아감

참여자들은 많은 과제들을 해내느라 늘 시간이 부족하며, 졸업 이전에 연구 논문의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조바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너무 금방 돌아와서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열심히 해도 정신 차리면 벌써 내일이 수업 날이고 숙제는 하나도 못했고.. 마음 편할 때가 없어요. 진짜... 마음에 돌덩이가 하나 딱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2).

방학 때 박사과정인데 사실 1학기와 2학기 사이엔 수업준비하고 리포트 하나씩 써내고.. 하면 (논문을 쓸)그럴 정신도 없었고..(중략)...1학기가 끝나서 방학이었는데, sub논문을 써야 된다는 생각과... 졸업을 어쨌든 4학기 안에는 수료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 2학기와 3학기 사이 때는 정말 논문을 써야 된다...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조바심이 들고, 3학기 들어와서 학교에 publish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됐다는 생각이 들고 나만 아직도 0%로인가?... 맨날 이렇게 쫓기면서 그냥 시간이 어떻게도 그냥 가버리는지... 아휴(참여자 3).

3.2.2 심도 깊은 학업 부담감에 짓눌림

참여자들은 어렵고 수준 높은 학문과정을 따라가느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답답하고 힘겨워 하고 있었다.

영어해석이 죽을 맛이에요. 이해도 안가고 시간도 엄청 걸리는데. 해도 모르겠어요... 진즉에 영어공부나 좀 해놓을 걸... 아휴. 한글도 이해 안 가는데 영어로 수업하시거나 하면 답답해요 진짜(참여자 2).

교수님께서 내준 숙제를 해 갖고 간다고 갔는데, 교수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만 이렇게 (수업을)못 따라가는 것인가...저는 한다고 하는데...모르겠어요...이해를 못하겠는 것(내용)이 많아요...어려워요 정말... 아무나 학위를 따는 건 정말 아닌가 봐요...(참여자 4)

3.2.3 가족에 대한 죄책감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족을 위한 역할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였고, 자신의 학업과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가족에게 미안해하였다.

친정엄마가 봐주시니까 그것도 미안하기도 하고..(중략)...아이들을 친정에 맡기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막 깨워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가서 보내고..(참여자 1)

가정에서의 생활은 하숙생이고, 신랑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박사 1,2학기 때는 그런 것도 정신없이 살았는데...(중략)... 애들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었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참여자 3)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집중도 안되고 독서실에 들어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중략)... 당장 팀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지금 아들은 중이염 기관지염에 열이 39.2도까지 올라서 입원할까 말까 대기 중이고...(슬퍼하며 시무룩한 표정) 그럴 땐 육아나 할 걸 괜히 복학해서 (가족에게)폐 끼치는 것 같고... 울고 싶네요(참여자 4).

3.2.4 많은 역할간의 갈등으로 몸부림침

참여자들은 가정, 일, 학업 및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해내기 위해 그 안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며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다.

생각만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뭘 먼저 해야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미치겠죠(참여자 2).

(병원)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제가 하는 업무 때문에라도 하루 온종일 (근무를) 뺄 수 없어서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만 반휴 받아서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내동 일하고 점심 먹고 학교에 오면 이젠 멍~해요. 오리엔테이션이 서지 않고...(참여자 3)

아들도 계속 아프니까 공부, 논문.....내가 하는 일에 회의감도 들고..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게 맞나 싶고...(참여자 4)

부모님이 아프시고, 일, 가족 병간호, 육아까지 너무 힘든데, 학교 인증평가로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힘든거야...(중략)...이번에 대학 임용을 받았는데, 나는 이 대학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싶은 대학이여서 잘하고 싶어. 그런데 학교 일에 치여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가고 있어서 그것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뭐 하나 내 성에 차게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참여자 5)

3.2.5 힘든 가운데 찾은 의미와 보람

참여자들은 힘들어 하면서도 보람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간으로 자신들만의 의미를 찾으며 힘든 과정들을 견뎌나가고 있었다.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좋기도 하고 저의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함이기도 하니까 긍정적인 의의가 있죠.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1).

그래도 제가 대학원 안 왔으면 이런 논문들을 읽기나 했겠어요? 가끔 이렇게 숙제하면서 논문도 읽고 있고 하면... 아~ 그래도 내가 논문도 읽을 줄 안다... 싶고 기분도 좋고. 잠깐, 아주 잠깐 기분도 좋고 그렇죠... 아는 게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요(참여자 2).

내가 언젠가는 이 업무(병원일)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이후에 뭘 할 수 있는가를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거야...(중

략)...내가 지금...지금은 (생활이)만족스럽지도 않고, 내 삶이 피폐하지만, 학위가 있으면 학교 쪽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고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니...(참여자 3)

저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오니 대학 임용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석사까지만 했었더라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중략)...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엄마가 자랑스러울 것 같다는 제 막연한 기대감이 저를 가끔은 웃음 짓게 만들어요(참여자 5).

4. 논의

본 연구는 다중역할을 하는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의 대학원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5가지 범주로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감', '심도 깊은 학업 부담감에 짓눌림', '가족에 대한 죄책감', '많은 역할간의 갈등으로 몸부림침', '힘든 가운데 찾은 의미와 보람'으로 나타났으며,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의 대학원생활에서 나타난 중심 현상의 첫 번째 경험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들은 기본적인 업무와 함께 각 직장에서 요구되는 업무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에 간호전문직의 일들을 수행하며 대학원 생활을 동시에 하게 되면 논문, 과제 등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의 업무와 대학원생활에 투자해야하는 감당하기 벅찬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 신임교수를 대상[18]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학 신임교수들이 교수생활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하여 시간에 쫓기며 생활하고 있으며,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계열 여성 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기혼여성 박사들은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려우며 결혼은 삶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두 번째로 경험하는 현상은 심도 깊은 학업 부담감에 짓눌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결과에서 경험의 중심현상이 버거움으로 범주화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간호학 대학원 과정생들은 전문적이며 수준 높은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버거우며 그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짐을 느끼며, 영어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시아 기혼여자대학원생과 미국 기혼여자대학원생의 대학원생활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종일 근무하는 상황의 부담감으로 나타난다는 박주희[2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대체로 일이 우선이고, 일 중심적인[21] 간호사는 학업의 과부화로 자존감 저하라는 정서적 경험이 신체적인 소진 증상으로 병행됨으로 정서, 심리, 신체적 고갈상태를 경험[12]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정서, 심리, 신체적인 건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함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경험하는 현상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에 종사하는 간호학 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여러 가지 역할 수행의 어려움', '가족과 다른 주위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므로 미안함을 느낌'의 주제로 분류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30대 기혼여성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 기혼여성간호사들이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있어 힘겨운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외줄타기 같은 삶을 살며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아직도 남성배우자 중심의 사회에서 겪는 기혼여성간호사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전통적인 성역할관의 변화, 남녀평등의식 증가, 사회민주화 등으로 여성들의 의식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전통적 여성의 역할은 가정 일의 중심이 되는 어머니로 특정 짓고 있는 실정으로[22],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37.4세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특히 어린 자녀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가장 심한 갈등과 죄책감을 경험하는 현상을 보였다.

네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많은 역할간의 갈등으로 몸부림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역할수

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역할간의 갈등 경험이다. 이는 대학원 과정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가정에서의 어머니, 부인, 자식의 역할에 있어 피로감이 쌓이고, 직장에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직업적 책임감과 함께 경쟁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다중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데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난 연구결과[23,24]와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또한, 간호학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 교수라는 전문직으로 성공을 하였어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업몰두의 특성과 가정생활의 요구로 인해 역할긴장과 역할갈등이 생활에 내재되어 있어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실제적이고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현상은 힘든 가운데 찾은 의미와 보람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이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한층 더 발전된 전문 간호사라는 느낌을 심어주고 있으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함께 간호학문의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들로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에 종사하는 간호학 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간호학의 재발견의 경험으로 간호학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정의를 재확립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와 학습을 통하여 한층 더 발전된 전문적인 유능한 간호사라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며, 간호사가 느끼는 유능감과 성취감은 자신감으로도 연결되고 대학원에서의 교육이 고학력사회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자신감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라고 나타난 연구[25]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 과정생들이 얻게 되는 자신감은 대학원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보다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대의학이 발전한 최근의 의료상황에서 간호전문직 기혼여성의 대학원생활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제시해주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며, 이를 토대로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이 성공적인 대학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결론적으로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의 대학원 과정생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면서 학업 부담감에 짓눌리고 역할 갈등을 느끼며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보람을 가지면서 전문적인 간호사로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간호전문직 기혼 여성에게 있어서 석·박사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도전적인 좋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간의 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지체계를 통하여 대학원과정을 배려하고 지지해 준다면 간호학문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돕고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전문직 기혼여성의 대학원생활을 대표하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간호전문 직업군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는 다양한 간호전문 직업군을 대상으로 탐색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S. Shin, J. Kim, & H. Lim, “Miss-matching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in doctors′ job marke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pp. 1-175, 2010.

[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Doctoral research(2014)-Domestic new doctorate holders Survey", pp. 1-175, 2014.

[3] J. S. Won, “Study on the Ego states and oping Styl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Vol. 8, No. 4., pp. 608-619, 2002.

[4] E. Y. Hong, “Care and Philosophy”, pp. 46. Soomoonsa. 2013.

[5] D. M. Crowley, “Theoretical and progratic issues related to the goals of doctoral education in nursing. Proceedings of the first National Conference on Doctoral Education in nursing”, pp. 25-29.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Nursing. 1997.

[6] K. S. Choi, K. H. Kim, S. A. Chi, H. J. Park, K. S. Choi, M. H. Chung, & Y. Kan, “The Study on Nursing Curriculum in the One Graduate School.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Vol. 6, No 2, pp. 111-119, 2002.

[7] K. S. Jang, M. H. Lee, I. S. Kim, Y. M. Hong, N. S. Ha, & B. H. Kong, “Ethics & profession of nursing. Seoul: Hyunmoonsa Publisher”, pp. 19-27. 2013.

[8] S. H, Hamaideh, & A. Ammouri, “Comparing Jordanian nurses' job stressors in stressful and non stressful clinical areas. Contemporary Nurse”, Vol. 37, No. 2, pp 173-187, 2011;. http://dx.doi.org/10.5172/

[9] H. Wu, T. S. Chi, L. Chen, L. Wang, & Y. P. Jin, “Occupational stress among hospital nurses: Cross-sectional surve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6, No. 3, pp. 627-634, 2010.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9.05203.x

[10] K. L, Barriball, V. Coopamah, J. Roberts, & S. Watts, “Evaluation of return to practice: The views of nurse returnees from three NHS hospital trust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5, 433-441(2007). http://dx.doi.org/10.1111/j.1365-2834.2007.00653.x.

[11] K. W. Cho, “Gender and education : What's problem?, Kyong Wo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17, pp. 29-62, 2006.

[12] M. J. Kang, Y. H. Kim, Y. S. Cho, S. R. Lee, K. R. Kim, Y. S. Kim & S. G.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Female Doctoral Candidates in Nursing. Qualitative Research”, Vol. 4, No. 1, pp. 27-40, 2003.

[13] S. Y. Kang, & H. K. Le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Labour and Burnout Among Married Female Nurses. Women's Studies Review”, Vol. 29, No. 1., pp. 41-78, 2012.

[14] J. S. Lee, G. Y. Kim, H. J. Lee, S. S. Hwang, M. S. Moon, & J. M. Cho,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Doctoral Course Students' process of getting out from Bugeuum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5, No. 2, pp. 67-82, 1996.

[15] K. S. Choi, K. H. Kim, S. A. Chi, H. J. Park, K. S. Choi, M. H. Chung, & Y. Kang, “The Study on Nursing Curriculum in the One Graduate School.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Vol. 6, No. 2, pp. 111-119, 2002.

[16]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7] K. N. Shin, “Research Methodology. Qualitative Research”, 2004.

[18] E. J. Lim, “The Academic Work and Life Experience of Newly Appointed Professors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Doctral Dissert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011.

[19] H. S. Kim, “Explore Career Development of Female Recetly Obtained Doctoral Degree in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de”, Vol. 11, No. 12, pp. 685-696.

[20] J. H. Park, “Related to Gender Role Resocializatin of East Asian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s =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of East Asian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s and American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1, No. 6, pp. 1-17, 2003.

[21] M. Y. Kim, “Nuses' Work-family Boundry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9, No. 1, pp 17-27, 2013.

[22] J. H. Yeo, “College Women's Meaning of Women : Phenomenological Method. J of Korean Acad Nurs”, Vol. 33, No. 1, pp. 34-41, 2003.

[23] T. S. Kim, & L. Xu, “Relationship of Interrole

conflict and Role-related Stress among Registered Nurses Pursuing Advanced Nursing Degre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1, pp. 5-12. 2012.

[24] D. B. McQuillan, & C. E. Foote, "Law school and marriage: making it work. Marriage & Family Review", Vol. 42, No. 4, pp. 7-34, 2007.

[25] B. J. Lee, & K. M.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 training graduate school's system and program model for training the professional teacher. Korean Journal of Comparatioe Education", Vol. 12, No. 1, pp. 1-24, 2000.

신 자 현(Shin, Ja Hyun)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2015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기본간호, 성인간호, 응급간호
- E-Mail : shinjahyun97@gmail.com

강 경 옥(Kang, Kyung-Ok)

- 2003년 8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1999년 7월 ~ 현재 :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질적연구
- E-Mail : hard07@hanmail.net

이 수 진(Lee, Soo-Jin)

- 2014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군장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성인간호, 질적연구
- E-Mail : sjlee@kunjang.ac.kr

김 현 숙(Kim, Hyun-Sook)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2014년 3월 ~ 현재 : 군장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건강증진, 지역사회 간호, 질적연구
- E-Mail : rhokim@gmail.com